

한국-UAE(아부다비), 디지털·첨단기술 분야 투자·산업 협력 확대

- 류제명 제2차관, 「아부다비 투자포럼(ADIF) 서울 2026」 참석
- 아부다비 정부기관 - 한국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(MOU) 7건 체결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 류제명 제2차관은 9월 16일(수)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「아부다비 투자포럼 서울 2026(Abu Dhabi Investment Forum Seoul 2026, 이하 ‘ADIF Seoul’)」에 참석하여, 한국과 아랍에미리트(UAE) 간 디지털·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.

ADIF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(Abu Dhabi Investment Office, ADIO)이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투자 포럼으로,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. 이번 행사에는 아부다비 정부·투자기관과 양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, AI·로봇, 첨단제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논의하였다.

류 차관은 행사에 앞서 아부다비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사전환담을 갖고, 디지털·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투자·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 특히 한국의 기술·산업 역량과 UAE의 투자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동 연구개발에서 투자·사업화,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기관과 한국 기업 간 총 7건의 양해각서(MOU)가 체결되었다. ▲아부다비 글로벌마켓(ADGM)-한화생명 간 디지털 자산 협력 MOU, ▲아부다비 투자진흥청(ADIO)-카카오게임즈 간 게임·컨텐츠 MOU 등으로, 양국 간 협력이 정부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기업 간 투자·사업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류제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AI 시대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함께 투자하고 개발하며 그 성과를 세계시장으로 확장하는 협력이 중요하다”며, “한국의 기술·산업 역량과 UAE의 투자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	책임자
		담당자

